



### 포천시산림조합 사방댐 건설현장 교육 실시

포천시산림조합은 지난 12일 군 내면 직두리 논배골 계곡에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함께 사방댐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현장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방댐 건설의 장단점을 논의했다.

포천시산림조합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방댐은 산사태 방지는 물론 여름철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포천시산림조합에 의하면 사방댐은 하천법립이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만큼 2007년 한해동안 7개의 사방댐을 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림조합은 사방댐은 산사태로 인한 흩어나 나뭇가지 등을 차

단하는 기능이 있으며 집중호우시 1개소의 사방댐에 대략 3천여톤의 토사가 채워져 하류지역 하천법립이 예방되어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남궁중 포천시산림조합장은 "사방댐을 조성함으로써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방지는 물론 강수 저장 기능을 발휘해 자연환경 보전과 홍수조절 효과가 있다"면서 "최근 기상이변 등을 감안하면 불안정한 산간계곡과 지천, 농경지, 주택 등의 상류 유역과 산사태위험지 등은 사방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방댐은 재해방지와 용수공급, 환경보전, 산림휴양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허승환 기자 forme66@paran.com



### 초등생 클래식 콘서트 감상 한우리오페라단, 신나는 예술여행

지난 7월7일 정교초등학교(교장 김선배)에 한우리오페라단이 방문해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했다. 문화예술 체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에게 이날 공연은 새로운 체험이 되었다.

특히 KBS 14기 송연희 성우의 콘서트 해설은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귀한 예술체험의 기회가 되었다.

한국가곡, 경기민요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한 학생들은 자주 공연 감상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김선배 정교초등학교 교장은 한우리오페라단에게 매년 찾아와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학교운영위원회 차원 혁신 지원책 모색

### 포천교육청, 서울지역 우수학교 벤치마킹 연수

경기도포천교육청은 7월12일 관내 학교운영위원장 43명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초·중·고·특수교육·상계고등학교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는 타 지역 학교운영 우수학교를 방문하여, 포천지역의 학교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포천교육청

에서 실시했다.

초당초는 '학교스포츠크터를 활용한 학교교육활동 지원', 을지중은 '주요 학습내용 반복학습이 가능한 자기주도적인 e-learning 학습 환경 제공', 상계고는 '논술관련 교사연구 네트워크 형성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사들의 방과후 활동'을 주제로 하여 벤치마킹 연수를 진행했다.

학교운영위원장들은 대도시와 교육적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학교시설과 함께, 학교운영의 벤치마킹 사례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청취하며 궁금한 점은 해당 학교장에게 질문을 하는 등 높은 관심과 함께 연수에 참가했다.

화현초등학교 김송희 위원장은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스포츠크터 건립과 활용이 돋보였으며, 지역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문화공간이 앞으로 학교 시설 건립 시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일동고등학교 구광식 위원장은 "포천지역의 학력향상과 대입진학을 위해서는 상계고와 같은 논술프로그램이 유용하며, 포천지역에서도 중·고등학교 논술담당 교사 네트워크 구성과 활동에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포천고등학교 하재인 위원장은 "우수학교 방문 연수가 포천지역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으며, 앞으로 포천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육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펼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나도 커서 경찰될래요”

### 포천뽕, 유치원생에 경찰서 개방행사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7월13일 관내 호산어린이집, 양문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경찰서를 개방하여 경찰업무, 각종 장비소개, 활동사항을 견학시켜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찰서를 방문한 원생들은 4층 강당에서 교통안전교육 및 미아방지에방대책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시작으로 경찰장구류 견학 및 전·의경의 시범으로 진압장면을 구경한 후, 112신고센터로 이동하여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경찰이

저씨들이 출동하는지에 대해 견학한 후, 경찰서 전정에서 기념촬영을 끝으로 견학행사를 마쳤다.

이번 경찰서 견학을 통해 방문 지도교사는 "어린이들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경찰의 친절하고 따뜻한 배려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는 항상 개방되어 있다"며, "언제든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목회단상

## 소유욕

현대인의 불행과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소유욕(所有慾)에서 비롯되고 있다. 내 것으로 해야만 만족하는 심리는 나와 너를 모두 파괴한다.

형(刑)나라의 어떤 사람이 활을 잃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활을 생각도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 "어쨌든 형 나라 사람이 활을 잃었는데 내가 찾으려고 애쓸 것 없지" 말을 듣고 공자(孔子)가 말했다. "형 나라 사람이 활을 잃었는데 내가 찾으려고 애쓸 것 없지" 말을 듣고 공자(孔子)가 말했다. "형 나라 사람이 활을 잃었는데 내가 찾으려고 애쓸 것 없지" 말을 듣고 공자(孔子)가 말했다. "형 나라 사람이 활을 잃었는데 내가 찾으려고 애쓸 것 없지" 말을 듣고 공자(孔子)가 말했다.

말이 있다. 재미 있는 농담이다. 넓은 우주를 생각하면 인간이 쌓은 울타리란 울타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다. 광대(廣大)한 천지를 바라볼 때 내 것이니 네 것이니 하는 줄국기는 그렇게 바보같은 인생 태도는 못된다.

창조주를 믿는 기독교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때문에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탁 받은 것이다.

경쟁 사회에서 전장과 같은 생활이긴 하지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강박(剛復)한 소유욕에서 조금은 풀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성서는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인되심을 잊지말라고 권고하신다. 누가복음 12장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문의) 031-532-2489

###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⑪

#### 종합적 견해

### 통일관련 법률을 남북통일을 위한 발전적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서희석

대성직장67농민대변인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 정부론에 의한 북한의 반국가적 불법 단체론은 그 법적 근거가 현행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있다. 현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역과 그 부속 도서로 하고 있어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한반도의 북쪽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2조는 현행 헌법 제3조에 의하여 북한을 한국 영토로 보고 현정부를 참칭하는 불법 단체로서 북한 정권을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반국가 단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국가보안법 규정이 헌법상 '평화 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1992. 9. 18. 대판 92도 1244; 1991. 4. 23. 대판 91도 212).

그러므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북한이 남한 정부에 대립되는 불법 단체로서 해석됨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진전에 따라 일부에서는 헌법 제3조의 규범적 영토 조항의 사색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제3조의 영토 조항은 제4조의 평화통일 주장과 상충되고 통일에 장애가 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다른 주장은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은 선언적 이념적 조항으로 헌법의 변천(Verfassungswandlung)으로 해석하여, 통일 한국의 영토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헌법 전문과 제4조 평화통일 규정에 대하여 '통일 한국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통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남북 관계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법 해석을 하여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헌법 제3조, 제4조와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기본합의서' 등 통일 관련 법률을 남북통일을 위한 발전적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새로운 건축문화를 위한 울딩의 모든것!  
세기산업과 함께 하세요!

Point Sculpture

SE GI INDUSTRY

세기산업은  
몰딩전문 생산업체로 끝없는 연구와 개발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및 규격, 색상 사이즈로 제작해 드립니다.

SE GI INDUSTRY

세기산업 / 종합몰딩생산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527-7  
Tel : 031-536-3317, 535-1293 Fax : 031-536-3318

건축 몰딩  
가구 몰딩  
인테리어 몰딩  
조각  
손잡이

SE GI INDUSTRY

세기산업 / 종합몰딩생산